



회원사 소식

▣ 현대모비스, 협력사와 '일곱 가지의 아름다운 약속' 선언

지원자금 조성 및 성과공유제 등 기타 상생협력 지원책 총 3500억원 규모



국내 최대의 자동차 모듈 및 핵심부품 제조업체인 현대모비스는, 최근 본부별로 운영되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합해 '일곱 가지의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상생협력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10월 8일 밝혔다.

현대모비스가 이와 같은 상생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더욱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협력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협력사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원-원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현대모비스는 첫 번째 약속으로 협력업체 지원자금 약 565억 원을 조성했다. 이 자금은 상생펀드·네트워크론 등의 명칭으로 협력사에게 지원되어 연구개발·운영자금·설비 투자 등으로 쓰인다. 둘째, 중소협력사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R&D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R&D 자금 지원·해석 기술 이전·게스트 엔지니어링·시험장비 지원·공동연구 강화 등의 활동을 펼친다. 세 번째 약속은 2·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 확대다. 2·3차 협력사를 지원하는 1차 협력사를 포상하는 한편, 향후 협력사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협력사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대모비스의 '협력사 품질인증 시스템 MSQ'(Mobis Supplier Quality)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품질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을 지원한다. 넷째,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4개 과정의 사내 품질교육프로그램,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연계된 외부 위탁교육 15개 과정, 기초연구 기술교육 2개 과정, A/S 부품 대리점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경영아카데미 등 부문별로 특화된 교육 과정을 확대 운영한다. 다섯 번째, 협력사와 소통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협력사 세미나' 등 구매 부문에서 14개, 'CTO 협의회' 등 R&D 부문에서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울러 해외연수 지원·계절과일 보내기 등의 다양한 포상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제도를 보강해 운영할 계획이다. 여섯 번째, 윤리경영과 협력사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킨다. '협력사 기술 사용자 심의제' 운영 등 하도급 3대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1·2차 협력사 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을 지원하며, 윤리경영 및 CP 신고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마지막 일곱 번째 약속은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해외 자동차 메이커에서 개최하는 부품 전시회에 협력사를 대동해 수출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고, 원자재를 협력사 대신 구매해주고 부품으로 공급 받는 사급제도를 활성화하며,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반영해 구매 가격을 현실화한다. 또한, 협력사 임직원은 물론 임직원 자녀의 외국어 교육 지원 등 감성적인 부문의 상생협력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일곱 가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구매본부장 산하에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협의회'를 구성, 각 본부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출 및 펀드 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매본부와 연구본부에 자금 지원 및 R&D 투자를 협의하는 투자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 LG, “가장 거래하고 싶은 기업이 되자”

‘상생협력 5대 전략과제’를 분야별로 나눠 ‘파트너십 상생경영’으로 실천키로



LG는 10월 9일 서울시 양재동 LG전자 서초R&D캠퍼스에서 LG전자·LG화학·LG디스플레이·LG이노텍·LG하우시스·LG생활건강·LG유플러스·LG CNS·LG엔시스 등 주요 9개 계열사와 100여 개의 협력회사가 참석한 가운데 ‘LG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LG의 9개사 CEO와 각 사별 협력회사 대표 1인이 협약서에 서명하며 공정거래 준수와 동반 성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 이등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도 참석해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상생협력 체결을 지원했다. LG에서는 남용 LG전자 부회장과 김반석 LG화학 부회장을 비롯해 LG이노텍·LG생활건강·LG디스플레이·LG CNS·LG하우시스·LG유플러스·LG엔시스 사장단 등이 참석했다.

LG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2,000여 개 협력회사와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지난 8월 초 발표한 그룹 차원의 ‘상생협력 5대 전략과제’를 분야별로 나눠 ‘파트너십 상생경영’으로 실천키로 했다.

이에 따라 LG는 협력회사와 R&D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방침으로, 미래성장엔진으로 적극 추진 중인 그린 신사업 분야에서 동반 성장할 중소기업 선정에 나선다. 그리고 협력회사와 장비 국산화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방침으로, LG는 중소기업에 통한 생산장비 및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본격 시작했다. 또한, 협력회사가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확보해 글로벌 수준의 업체로 성장하도록 인사·노무·영업 등의 전반적인 경영역량을 높여주는 사업지원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금 지원 및 결제조건을 개선해 협력회사에 대한 금융지원 파트너십을 확대할 방침이다. 9월부터는 LG전자·LG화학·LG디스플레이·LG이노텍 등 4개사가 100% 현금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1차 협력회사가 2차 협력회사에 현금결제 비율을 확대하도록 유도해 2·3차 협력회사에 대한 간접적인 자금지원 효과도 거두겠다는 것이다. 특히, 2·3차 협력회사까지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연간 2,500억 원 규모의 ‘LG 상생협력 펀드’의 대출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700억 원 규모의 직접대출과 네트워크론, 패밀리론 등 3,700억 원 규모의 금융기관 연계 간접대출 등 총 7,400억 원 규모의 협력회사 자금 지원을 계열사별로 적극 집행할 방침이다.

LG는 그룹 차원의 중소 협력회사 소통 전담 온라인 창구인 ‘LG 협력회사 상생고’를 오픈한다.

이런 파트너십 상생경영 실천을 통한 지원방안 약속과 함께 LG는 이날 협약식을 통해 협력회사와의 공정거래 준수를 위해 공정한 계약 체결 및 거래,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력회사 선정·운용, 불공정 거래행위의 사전 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 등 ‘공정거래 3대 가이드라인’도 도입했다.



회원사 소식



공정위, 대우건설·계룡건설의 상생협력 '우수' 평가

2개사의 총 지원효과는 약 89억원 수준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6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대우건설과 계룡건설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2개사 모두 최우수 바로 아래 단계인 '우수' 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계룡건설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운용했고, 하도급대금은 어음이 아닌 100% 현금성 결제수단을 통해 지급했다. 또한, 납품단가 인상, 자금 지원,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지원, 상생협력 전담부서 설치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개 건설사의 협력사에 대한 자금 지원, 납품단가 인상 등에서 나타난 총 지원효과는 약 8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1년 후에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협력사 거래대금 100% 현금결제

10월 1일부로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현금으로 결제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은 중소기업과의 상생 및 공동발전을 위해 국내 건설사로서는 최초로 중소 협력업체와의 거래대금을 100% 현금 결제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포스코건설은 중소 협력업체의 거래대금이 4,000만 원 미만일 경우엔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던 기존 지급규정을 폐지하고, 10월 1일부로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포스코건설은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어음결제를 폐지하고 100% 현금으로 결제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포스코건설 협력업체인 김철 대아공무주 대표는 "여러 해 지속된 금융위기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면서 "이 외중에 포스코건설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자금난 해소를 돕고자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이외에도 금융 지원, 기술 협력, 교육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과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는 동시에 투명한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데 힘써 오고 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은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거래 등 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 부문에서 A등급(우수)을 받아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의 모범기업으로 평가 받았다.

▣ 삼성전자, '협력사 동반성장 대토론회' 개최

'상생경영 7대 실천방안' 세부내용 공유 · 2·3차 협력사 지원방안 토론, 경영진과의 대화 등



삼성전자는 10월 1일과 2일 양일간, 원주 오크밸리에서 1차 협력사는 물론 2·3차 협력사까지 대거 참석한 가운데 '협력사 동반성장 대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는 최지성 대표이사를 비롯한 삼성전자 사장단과 각 사업부구매 관련 임직원, 180여 개 협력사 대표 등 총 220여 명이 모여 지난 8월 16일 발표된 '상생경영 7대 실천방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고 동반성장을 해나가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삼성전자는 그 동안 상생실천을 위한 협력사와의 워크숍을 매년 해왔지만, 이번과 같이 사장단이 대거 참석하고 2·3차 협력사 대표까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이는 회사 최고 경영진의 상생경영 실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 달 14일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협력사 동반성장'을 주제로 진행된 '전 임원 특별 세미나'와 같은 달 30일, 구매 관련 전 임원과 부장급을 대상으로 실시된 'CEO 특별 교육'에 이어 한 단계 더 나아가 조차다.

삼성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경영진이 협력사 대표들과 직접 만나서 상생경영 7대 실천방안에 대한 가감 없는 의견을 청취했고, 협성회(삼성전자 협력사 대표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1차 협력사 대표들은 상생의 과실이 2·3차 협력사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류했다.

1일 오전에는 삼성전자의 상생경영 7대 실천방안을 근간으로 협성회 소속회사 대표들이 자체 토의를 거쳐 2·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방안과 동반성장 선순환을 위한 상호역할을 협의했으며, 2·3차 협력사 대상 현금결제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했다. 오후에는 삼성전자 주관으로 협력사 대표들에게 △ 3대 핵심 원자재 철판, 레진, 사급제도 운영 △ 1차 협력사 확대방안 △ 기업은행 연계 금융 지원 △ 베스트 컴퍼니(Best Company) 육성 등 새로운 제도를 중심으로 상생경영 7대 실천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서 진행된 삼성전자 CEO와의 간담회에서 최지성 대표이사는 "삼성전자는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완제품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데는 협력사들의 도움이 컸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인식 하에 지난 30년간 일관되게 상생 경영을 실천해 왔으나, 아직 모든 협력사들이 똑같이 그 결과를 공유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제 글로벌 경쟁은 단일 기업간의 경쟁이 아니라 기업 네트워크 또는 기업 생태계간 경쟁인 만큼 '상생을 넘어 동반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상생경영 7대 실천방안에 반영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연내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LG이노텍, 협력사와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을 100%까지 확대



LG이노텍은 10월 6일 서울역사 KTX 별실에서 100여 개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웅범 부품소재사업본부장 등 LG이노텍 임직원과 한기수 창원옵텍 대표 등 30여 개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의 골자는 LG이노텍이 협력사 대금 지불시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을 100%까지 확대하고, 협력사별로 유동적이었던 결제기간도 14일 이내로 단축 통일시킨다는 것이다.

LG이노텍은 협약식을 통해 지난달 그룹이 발표한 'LG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의 세부 실행방안을 공개했다. 회사 측은 향후 협력사와 연구개발(R&D)·금융·경영·교육 지원 및 소통 강화 차원의 상생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지원 분야에서 자금 지원 및 결제조건 개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LG이노텍은 직·간접적으로 총 300억 원의 상생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을 100%로 확대하고 결제기간도 14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협력사와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4건 이상 시행한다.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사업은 대기업의 수요를 전제로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아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제도로,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실제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소기업 선호도가 높다.

경영컨설팅 지원제도인 '경영닥터제'도 확대 시행한다. 경영닥터제는 협력사의 생산성 제고 및 인사제도 개선,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관련 자문을 지원해줌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로, 통상 6개월간 지속될 정도로 세밀한 경영 노하우 전수가 이뤄진다.

LG이노텍 측은 "앞으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실행에 초점을 둘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STX그룹, 500여개 협력사와 동반성장 협약 체결

협력사는 '글로벌 성장의 동반자', 세계를 향한 도전과 성장 함께 할 것



STX그룹은 10월 15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강덕수 STX그룹 회장과 80여 명의 협력사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STX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호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장섭 한국조선협회 부회장, 박영탁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부회장도 참석해 대중소기업의 자율적인 상호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며 자리를 빛냈다.

협약 선포식은 STX그룹의 조선기계 부문 계열사인 STX조선해양, STX엔진, STX중공업, STX메탈과 506개 협력사가 동반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공정거래의 질서를 확립코자 실시됐다.

STX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사와 세계를 향한 도전과 성장을 함께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으며 '위드플러스(With Plus)'라는 기치 아래 서로 '성장파트너'임을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TX그룹과 협력사 간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은 크게 △ 금융 지원 확대 및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개선 △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위한 지원 확대 △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교육 지원 확대 △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를 위한 협력사업 확대의 4대 실천내용을 담고 있다.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 초점을 둔 이번 협약에는 기존의 금융 지원, 기술 협력,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협력업체들과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발주물량 사전예고제 도입 등의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STX는 그룹 임직원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인프라도 협력사와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사내 교육 인프라를 공유함으로써 상호간 직원 경쟁력 강화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STX그룹은 1·2차 협력사 대표단이 언제든지 강덕수 STX그룹 회장 및 계열사 CEO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상시 협조체제를 갖추기 위해 'STX 상생 핫라인(Hot-Line)'도 추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협력사의 목소리 전달과 직접적인 의견수렴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제를 갖추기 위함이며, 이 분야는 그룹 차원의 전담조직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총괄하여 건전한 상생협력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회원사 소식



□ 현대·기아차, 협력사 동반성장 선언

지속성장 가능한 글로벌 중소·중견기업 육성 위한 3대 추진전략 발표



현대·기아차가 협력사들의 지속성장을 위한 확대·강화된 상생협력 전략으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선언하고, 협력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기아차는 그 동안 자금·금융 지원, 글로벌 대응 시스템 지원 등 협력사들의 경영 안정 기반 구축을 통해 협력사들이 혁신 자립형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상생협력을 추진해 왔다.

현대·기아차는 혁신 자립형 중소기업 육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생협력으로 다져진 경영기반을 바탕으로 협력사들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중소·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동반성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대·기아차는 보다 체계적인 '동반성장' 추진을 위해 사내에 전담조직과 동반성장협의회를 운영하고, 부품산업진흥재단과 함께 협력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 방안들을 모색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현대·기아차는 △ 글로벌 경쟁력 육성 △ 지속성장 기반 강화 △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을 '동반성장'의 3대 추진전략으로 삼고, 9대 중점 추진방안을 설정해 협력사들의 기술·품질 경쟁력 강화, 해외 판로 확대, 동반성장 문화 조성 등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현대·기아차는 '협력사 글로벌 경쟁력 육성'을 위해 기술 개발력 육성·품질 경쟁력 육성·생산성 향상 지원 정책을 중점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그 동안 추진해 온 게스트 엔지니어링 제도, 2차 협력사 현장지도 R&D 모터쇼 협력사 초청 등 이외에 '협력사 R&D 기술지원단'을 신설 운영하고, '협력사 품질학교' 및 '협력사 업종별 지원 체제'를 새롭게 구축해 협력사들의 기술·품질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현대·기아차는 '협력사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협력사의 글로벌 판로 확대·경영 안정 기반 강화·성장인프라 구축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해외 동반진출, 2·3차 협력사 부품 해외 공급 확대, 협력사 독자 수출 지원, 원자재 시급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고, 협력사 녹색경영을 위한 그린파트너십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프로그램인 '동반성장 아카데미'를 통해 협력사들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동반성장에 대한 사내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재동 본사 및 남양연구소에 근무하는 임직원 1,900여 명을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중요성과 현대·기아차 동반성장 전략 등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현대·기아차는 1차~2·3차 간 상생협업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한 협력네트워크 강화·2차 협력사 지원 강화·동반성장 문화 조성을 통한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무엇보다도 협력사들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동반성장 활동을 수렴하기 위해 협력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현장점검 활동을 적극 강화한다.

현대·기아차의 다양한 동반성장 제도에 대해 협력사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반성장 웹사이트'를 내년 본격 가동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협력사 사회봉사단 운영'을 위해 연간 5억 5,0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협력사들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제공할 예정이다.

▣ 하이닉스, 협력회사와 함께 ‘파트너스 데이 2010’ 개최

국내외 협력회사 85개사 대표들과 동반성장 모색의 장 마련



하이닉스반도체는 국내외 협력회사들과 협력적 파트너십 강화 및 동반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하이닉스 파트너스 데이 2010’을 10월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경기도 곤지암 리조트에서 진행됐다.

이번 ‘파트너스 데이 2010’ 행사에는 권오철 사장 등 하이닉스 주요 임원들과 국내 54개, 해외 28개 회원사 및 3개 비회원사 등 총 85개 협력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하이닉스는 협력회사들에게 경영현황을 설명하고, ASML, Varian 등 국내외 12개 우수협력회사를 선정해 공로상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하이닉스의 사업장이 있는 이천, 청주지역 고등학교 1개교씩 선정해 실습기자재를 전달하는 기증식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권오철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하이닉스는 경기 변동성을 극복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 구매 및 투자 계획의 예측성을 높여 협력회사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겠다”고 전하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동반 성장하기 위해 각자 해당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역량을 확보하고 성공공동체로서의 인식을 바탕으로 열정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하이닉스는 2008년부터 구매실에 상생협력 전담조직을 두고 성능평가 협력사업 등 기술 지원, 1,000억 원 규모의 상생보증펀드 운영 등 재무 지원, 집중육성품목 구매 연결 등 구매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교육·특허·친환경 분야의 협력을 통해 협력회사들이 근본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 1차 협력회사 대상 프로그램을 2차 협력회사와도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박용현 두산 회장, 동반성장 위한 본격 행보

두산그룹 계열사 '협력업체 핫라인' 연이어 개통



박용현 두산 회장이 협력업체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계열사 경영진에게 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는 등 본격적인 동반성장 행보에 나섰다.

박용현 회장은 10월 25일, 경상남도 창원에 각각 위치한 두산중공업 협력업체 진영티비엑스와 두산인프라코어 협력업체인 삼광기계를 잇따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박용현 회장은 이 자리에서 "두산 경영진들은 앞으로 협력업체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눠 협력업체의 지원 요청이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동반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동행한 계열사 경영진에게 협력업체가 건의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용현 회장은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두산 계열사뿐 아니라, 우수한 협력업체도 사회공헌활동에 함께 참여하면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문화 공유와 유대감이 더욱 커지는 등 여러 가지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두산그룹에 따르면 최근 두산중공업이 '윈-윈(Win-Win) 콜센터'를 최근 개설한 데 이어, 두산인프라코어도 '협력업체 핫라인'이란 이름의 전용 창구를 11월부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동반성장추진팀에 전용전화(080-069-5000)를 개설하고, 회사 홈페이지와 이소싱(e-Sourcing) 웹사이트 <http://e-sourcing.doosanheavy.com:8015>에 상담 메뉴를 신설했다.

두산인프라코어도 동반성장추진팀에 전용전화(080-398-6000)를 설치하고 홈페이지(<http://www.doosaninfracore.com>)에서도 제안이나 신고를 접수한다.

전용창구를 통해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준다는 방침이다.

지주회사인 (주)두산 동반성장지원팀의 이준길 전무는 "윈-윈 콜센터와 핫라인은 의사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협력업체의 불편함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산은 앞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계열사별로 동반성장 프로그램인 선순환적 파트너십 계획을 보완, 추진할 계획이다.

□ SK텔레콤, '글로벌 플랫폼' 육성 방안 발표

T아카데미·MD테스트 센터에 이어 OIC 구축으로 '상생혁신센터' 오픈



플랫폼이다.

이날 SK텔레콤은 아이디어를 가진 외부 개발자에게 창업을 위한 자금·사무공간·경영·마케팅을 지원하는 OIC(Open Innovation Center)를 서울대학교내 SK텔레콤 연구동 1층에 구축, 서비스 플랫폼 사업 성공의 결정적 파트너인 개발자와의 협력 체계를 한층 확대했다. OIC 구축으로, 외부개발자에게 전문교육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T 아카데미', 개발을 위한 각종 단말기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MD 테스트 센터'와 더불어 '상생혁신센터'의 마지막 한 축이 완성됐다.

정 사장은 "이번 상생혁신센터 오픈으로 외부 개발자를 위한 종합 지원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날 발표한 서비스 플랫폼 전략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개발자그룹을 육성하고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이 완성됐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서비스 플랫폼 육성을 위해 콘텐츠·디바이스 사업자 및 외부 개발자들과의 협력적 에코시스템을 통한 동반성장 방안도 공개했다. 우선 T맵, SMS·MMS, T스토어 등 시장 내에 경쟁력을 가진 플랫폼을 개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내에 외부 개발자들이 SK텔레콤의 개방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 '통합 AP센터'를 오픈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개발할 모든 플랫폼들은 개방을 전제로 설계·구축할 계획이다. 서비스 기반기술(API)이 공개되면 개발자들은 SK텔레콤의 다양한 플랫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더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해진다.

외부 개발자들에 대한 종합지원 프로그램도 기동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1인 예비 창업자를 선발해 △ 최대 5,000만 원까지 창업자금 지원 △ 1~5인 사무공간 지원 △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지원 △ 테스트 단말 및 기술 지원 △ T아카데미 교육 참여 △ T스토어, 네이트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등 종합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도 이날부터 시작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의 서비스플랫폼과 연계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외부 기업과의 동반성장 사업도 동시 추진된다. 기업들이 SK텔레콤의 공개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제안할 경우, 평가를 통해 최대 5,000만 원까지 개발자금과 추가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이다.



회원사 소식



LG디스플레이, 협력회사와 '정도경영' 실천 선언

실력을 통한 정당한 경쟁을 의미하는 '정도경영' 협력회사와 함께 실천 선언



LG디스플레이가 협력사와 함께 실력을 통한 정당한 경쟁을 의미하는 '정도경영' 실천을 선언했다.

LG디스플레이는 11월 3일 경기도 파주 디스플레이 클러스터에서 LG디스플레이 및 122개 협력회사 임직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도경영 실천 공동선언식'을 개최하고, LG디스플레이의 이한상 구매센터장을 포함한 구매 담당 임원 4명 및 협력회사 5개사 대표가 함께 선언서에 서명,

동반 성장을 위한 공정거래 준수를 약속했다.

'정도경영 실천 선언서'는 LG디스플레이와 협력회사들이 △ 자유경쟁 원칙에 따른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 공정거래를 통해 상호 간에 협력하며 △ 정직과 공정의 신념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이번 공동선언을 통한 윤리적 경영, 즉 '정도경영' 실천은 장기적으로 LG디스플레이와 협력회사 모두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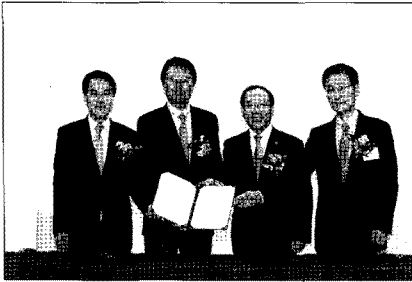
한편, LG디스플레이는 현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경영진에 대한 인식 고취, 신입사원 교육, 부문별 특화교육(카르텔 및 하도급), 외부 전문가 초청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에는 협력회사도 정도경영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세미나,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LG디스플레이의 협력회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일이 없도록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및 부정, 비리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정도경영 신문고'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LG디스플레이 구매센터장 이한상 상무는 "정도경영 기반 없이는 LG디스플레이는 물론 협력회사 역시 성장할 수 없다"며 "협력회사들의 든든한 성장 파트너로 LG디스플레이가 믿을 수 있고 꼭 거래하고 싶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 공정한 대우를 먼저 실천할 것이고, 협력회사들도 정도경영 및 공정경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전기, 협력사 동반성장 8대 추진방안 발표

끊임없는 혁신 통한 제조경쟁력 확보와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기술역량 강화



삼성전기는 11월 3일 수원사업장에서 박종우 사장 등 임직원과 130개 1, 2차 협력회사 대표,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등 대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식'을 갖고, 동반성장 8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삼성전기가 발표한 8대 추진방안은 △ 중소 협력회사 납품 대금 100% 현금 지급 △ 상생펀드 1,000억 원 조성 협력회사 자금 지원 △ 기술개발 협력사업 강화와 추가 △ 협력회사 직거래 전환과

지원 확대 △ 원소재가 변동분 부품 단가 반영 △ 신뢰성 장비와 계측기 교정 지원 △ 협력회사 특허와 기술보호 방안 마련 △ 협력회사 교육 훈련을 위한 상생아카데미 강화 등이다.

박종우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동반성장 8대 추진방안이 삼성전기와 협력회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제조경쟁력 확보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삼성전기는 이번 협약식과 함께 '제7회 삼성전기-협력회사 원원대회'를 동시 개최해 경영혁신 활동의 성과가 뛰어난 우수 협력회사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주요 혁신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